

아프리카 위해 ‘아름다운 사람들’ 온정 모아

아름다운동행-불교포럼
 탄자니아 농업고등학교
 건립위한 후원의 밤

연말을 맞아 아프리카 탄자니아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아름다운 사람들이 정성을 모았다.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은 불교포럼(상임대표 김동건)과 함께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3층 나인트리컨벤션에서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고등학교 건립을 위한 후원의 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동행 이야기’를 개최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염경엽 넥센 히어로즈 감독에게 아름다운동행 홍보대사 위촉장을 전달하는 모습.

보리가람 농업기술고등학교는 2016년 4월5일 준공, 8월 개교를 목표하고 있다. 안정적인 학교 건립과 운영을 위해 50억원 모금을 목

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20억 가량이 모인 상황이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300여 명은 농업학교 건립모금 영상을 시청하며 학교 건립에

마음을 모았다. 후원신청서를 작성하는 불자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사회를 맡은 극락사 주지 자용스님과 불자 개그맨 이수근 씨도 학교건립 기금 모금 동참을 호소했다. 현장에서 정성을 보태는 사찰의 후원 행렬도 줄을 이었다. 조계사, 봉은사, 108산사순례기도회 등이 3000만원을 기부한 것을 비롯해 관음사, 수국사, 옥천암, 진관사, 미타사 등도 십시일반으로 마련한 정성을 보태며 아프리카 학교 건립이 원만히 이뤄지기를 한 마음으로 기원했다. 국회 정각회 간사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도 정각회 의원들의 성금을 대표로 전달하며 마음을 보냈다. 또 그동안 동행

을 후원해 준 배상문 프로와 백경남 동국대 명예교수가 감사패를 받았으며, 염경엽 넥센 히어로즈 감독과 불자 아이돌 그룹 순정소년을 동행 홍보대사로 위촉하며 활발한 활동을 당부하기도 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농업기술학교를 건립하는 것은 단순히 학교 건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희망과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미래를 선물하는 것”이라며 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김동건 불교포럼 상임대표도 “오늘 행사가 불교의 나눔 정신을 온 세계에 전하는 불씨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기자 che11@ibulgyo.com

연말시상식 특정종교 표출 반복되나

연예대상이나 가요대상 등 방송사 연말결산 프로그램 등이 예정되면서 또 다시 시상식에서 종교적 신념을 표출하는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연말 시상식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등 수상자들의 종교적 신념 표출행위가 이어질 것인가.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정문스님)는 지난 4일 KBS, MBC, SBS 등 3사에 공문을 보내 연말 시

방송사 “수상소감 자제 어렵다” 종평위 “시상식 모니터링 한다”

상식에서 수상자들이 특정종교 수상소감을 자제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송과 같이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매체에 오르내리는 사람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미 공인이며, 공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방송이라는 공공의 힘을 빌어 표출하는 것은 종교간 평화와 화합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종평위의 종교적 신념 표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전방이다. 방송사들은 수상소감에서 종교적 신념을 표출하는 행위에 대해 “수상자 개인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방송사 차원에서 종교적 신념 표출행위 자체를 요청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MBC 홍보국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문이 공유되지 않아 언급할 수 없지만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소감을 통해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것은 개인적인 부분”이라며 “사전 공지를 통해 수상소감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SBS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SBS PR팀은 “수상자들의 수상소감을 방송사 차원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KBS 홍보실의 경우 “공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종평위는 방송 3사 연말 시상식을 모니터링한 뒤, 수상소감에서 종교적 신념을 표출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종평위 조사 결과 지난 2012년에는 36명이, 2013년에는 25명이 시상식에서 종교적 신념 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기자 che11@ibulgyo.com

“생명평화 정진 회향은 새로운 시작”

총무원장 자승스님, 지속적인 결사 추진 천명

종단 자성과 쇄신을 위한 생명평화 1000일 정진이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1000일 정진의 성과는 생명평화 법당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자는 ‘붓다로 살자’ 운동을 확산하며 이어나갈 방침이다.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스님)는 지난 23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생명평화 1000일 정진 회향 및 생명평화 법당 개원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수행, 나눔, 문화, 생명, 평화 등 5대 결사를 상징하는 생명평화의 등 공양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결사추진본부장 도법스님이 부처님 전에 진제 종정예하의 ‘붓다로 살자’ 휘호를 봉정하며 붓다로 살자 운동의 확산을 염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포교원장 지원스님은 생명평화의 등을 붓다로 살자 실천도량으로 동참하고 있는 조계사, 국제선센터 등 10곳에 전달하며 결사의 대중화, 생활화를 당부했다.

진제 종정예하는 원로의장 밀운

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우리가 천일의 간절한 서원을 세움은 천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일을 향한 첫 걸음이요, 정법을 향한 끝없는 결사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생명평화 정진을 회향하는 것은 오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지속적인 결사 추진 의지를 천명하며 “붓다로 살자 운동과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통해 중도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결사추진본부장 도법스님도 “한반도 생명평화공동체가 실현되도록 붓다로 살자의 실천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회에 이어 1000일 정진 회향과 함께 정진의 성과를 이어나갈 생명평화 법당도 문을 열었다. 1000일 정진단에서 전환된 생명평화 법당은 불교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불교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될 생명평화 법당 현판식 모습. 김형주 기자



‘동지현말’

지난 22일 동지를 맞아 조계사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주지 원명스님이 직접 새 버선을 신겨 드렸다. ‘동지현말’이라 하여 새 버선을 신고 이날부터 걸어지는 해 그림자를 밟고 살면, 수명이 길어진다는 하여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이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부산정보고 부산서 30년 만에 고교야구부 창단

야도(野都) 부산에서 30년 만에 고교 야구부가 창단됐다. 부산정보고등학교(교장 배도균)는 12월18일 교내 체육관에서 야구부 창단식을 거행했다. 이날 창단식에는 영남학원 이사장 영담스님, 이사 이암스님, 이사 능원스님, 이광환 한국야구위원회 육성위원장, 윤정현 대한야구협회 전무이사, 양상문 LG 트윈스 감독 등 내외빈과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배도균 부산정보고 교장은 창단식사에서 “열악한 상황에도 할 수 있다는 열의와 의지로 충

만한 분교 야구부가 서로 신뢰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신바람나는 학교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우수한 인격을 구비한 선수를 확보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실력과 인성을 두루 갖춘 선수를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남학원 이사장 영담스님은 치사를 통해 “부산은 야구도시라고 할 정도로 (야구는) 생활이고 자존심이겠다. 부산 시민들이 야구를 사랑한다”면서 “오늘 창단하는 야구부가 자부심을 갖고 선배들에게 뒤지지

않았다는 다짐으로, 부산의 야구역사를 빛내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상문 LG 트윈스 감독은 평소 〈전수경〉 등 불교경전을 지니고 다닌다는 불교와의 인연을 밝힌 뒤에 “규칙에 의해 정직하게 실력을 쌓아 부산정보고 야구부 선수들이 자랑스러운 학생들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부산정보고 야구부는 지난 11월 16일 부산 구덕야구장에서 열린 제3회 롯데기 부산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해 부경고를 7대6으로 승리하며 파란을 일으켰다.

부산=이성수 기자

독거노인 마지막 가는 길 배웅

광주 무각사, 무연고 영가 49재

불자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무연고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49재를 올리고 있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17일, 광주 무각사 대웅전 영가단에 제물이 올려졌다. 영고가 없는 독거노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부처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였다. 초재가 열린 이날 영가의 주인은 며칠 전 간암으로 세상을 하직한 최오남(75)씨. 최씨는 노인연금 20만원과 생계급여 28만원으로 근근이 살아가던 무연고 독거노인이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평생 홀로 살아온 최씨는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보다 더 불우한 이웃을 위해 보시행을 했다. “제가 죽은 뒤 아파트 보증금과 통장에 남은 돈이 있다면 모두 어려운 이웃을 위해 드리고 싶습니다.” 불우이웃에게 써달라고 장수노트(임종기 록부에 유언을 남긴 것이다. 최씨의 전 재산은 현금 40만 원, 아파트보증금 139만 원, 통장 잔액 9만8000원

이 전부였다. 이 소식을 들은 무각사 주지 청학스님은 이날 관음재일 법회에서 최씨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49재를 제안했고, 신도들이 뜻을 모아 천도재를 준비키로 했다. 법회를 마치고 모인 성금은 총 60여만원. 신도들은 초재와 막제 제물을 준비키로 하고 청학스님이 부처님 말씀을 들려주는 법주가 되었다. 청학스님은 초재에 앞서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나눔을 펼친 어르신은 보시행을 값지다”며 “어르신의 마지막 가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함께하자”고 말했다. 이날 천도재에는 최씨의 마지막을 지킨 방문요양사 이순자씨가 함께 했다. 이씨는 “최씨 어르신은 영구임대아파트에서 20여년 기거했지만 알고지내는 이웃하나 없을 만큼 외롭게 사셨던 분이다”며 “무각사 신도들이 어르신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 주어 좋은 곳으로 잘 가실 것이다”고 울먹였다.

이준엽 광주·전남지사장

서울불학승가대학원에서 대승경전을 연찬할 스님을 모집합니다. (학인 모집 공고)

서울불학승가대학원은 대강백이신 지안 큰스님(조계종 고시위원장)을 모시고 대승경전을 강독하며 연찬하는 제7기 서울불학승가대학원 학인스님을 모집합니다.

매주 2회, 총 2년간 진행되는 본 교육과정은 구족계를 받은 비구, 비구니 스님들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대승경전 4권을 전통강의법에 입각하여 자상하게 해석해줌으로써 대승불교의 진수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주지 등 소임을 살거나 포교에 전념하시는 스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모집대상			
•승려: 총 60명 내외(조계종 승려 및 타종단 승려 약간명) •재가자: 총 20명 내외(※ 재가불자의 청강도 가능합니다)			
모집방법			
서류전형(심사 후 개별통보)			
교육시간 및 장소			
•학제: 2년 4학기, 학기당 30회(15주) 수업 •수업시간: 매주 화, 수요일 오후 6시~9시 •교육장소: 법원사 (서울 종로구 사간동 121-1) 2층 불일문화회관			
수료자특전			
서울불학승가대학원을 졸업할 경우 3급 승가고시 응시에 필요한 교육경력 2년을 인정함.			
교육과정(2년제 4학기)			
학기	교과목	강의횟수	교수사
1	금강경 오기해	30회	지안스님 (대한불교)
2	대승기신론	30회	
3	법화경	30회	조계종 고시위원장)
4	화엄경	30회	

(※ 초파일 휴강 등 세부적인 학사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서울불학승가대학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부설)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주소 _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 전화 _ 02-730-6565 팩스 _ 02-732-4926
- 이메일 _ education@buddhism.or.kr
- 원서교부 _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등록금	
•스님: 1학기당	700,000원
•재가자: 1학기당	1,000,000원
접수기간	
2015년 1월 5일 ~ 2월 6일 까지	
합격자발표	
2015년 2월 13일(개별통지)	
신청방법	
•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 검색창에 ‘서울불학승가대학원’을 검색하시어 첨부자료(입학원서) 다운로드 작성 후 아래 제출서류와 함께 우편 및 이메일 등으로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승적증명서 또는 승려증 사본	1부
• 반명함판 사진(3×4)	1매
• 재가자는 신도증 및 종단에서 인가한 불교대학 졸업자인 경우 졸업증서 사본	1부